



# 정교회주보

##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뻘셈니 수도자

- 부활 후 제 8주일 / 오순절  
 성 테오도토스 주교순교자  
 조과복음 / 요한 20:19~23(조과복음 9와 동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2응송 / 265, B 334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입당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5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시기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6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 오순절 예식서 40
  - 사도경 : 사도행전 2:1~11 / 265, 봉독서 101
  - 복음경 : 요한 7:37~52, 8:12 / 106, B 31
  - 오순절 영성체송 / 266, 오순절 예식서 87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84
  - 이어서 “성령강림 대만과” / 오순절 예식서 88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테오파니스와 성 뻘셈니 수도자

위대한 힘, 즉 세상을 영적으로 갱생시키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분의 수난과 부활에서 나온 가르침, 그 분의 영의 신성한 은총입니다. 이 힘이 세리였던 마태오를 복음사가로, 박해자 바울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명예의 도구였던 죄인 이집트의 마리아를 성령의 향유함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뻘셈니 성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녀는 죄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성 테오파니스 수도사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노력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면서 기적을 베푸는 성녀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분의 성인을 6월 10일 축일로 기념하면서, 성령의 갱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 구원의 대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원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일치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며 이들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과 성인들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천막 어귀에 앉아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대접하였다. 이로 인해 세 사람의 나그네(성 삼위 상징)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예언자 엘리야는 무념무상이란 정적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였고, 다윗은 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였다.

또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을 때는 제일 덥고 뜨거운 시간인 정오 무렵이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먼저 청하셨다.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자 그 여인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사마리아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동네로 내려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선교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하였기에 선교의 불빛을 상징하는 포티니 성인이 되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사업상 만난 사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축여줄 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서말씀과 교회와 교부들 및 성인들이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익혀서 날마다 나누는 말속에서 ‘생명의 대화’, ‘구원의 대화’를 사용할 줄 알아야한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구원의 대화를 하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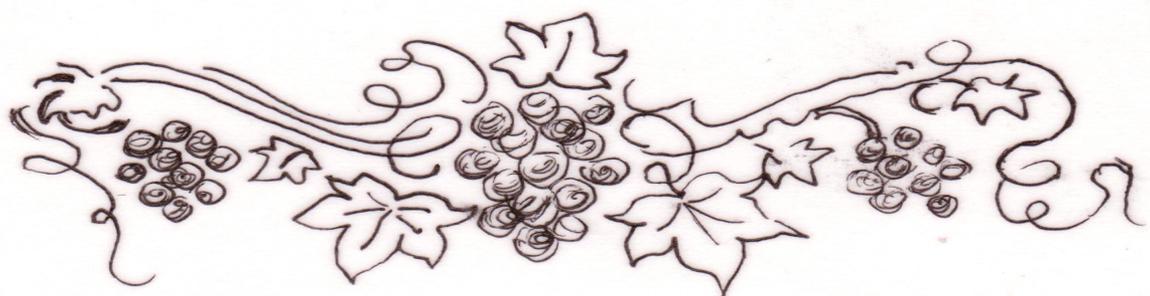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성령강림주일  
신신학자 성 시메온(10세기)이  
쓴 '성령에게 드리는 기도'

오소서, 참된 빛이여  
오소서, 영원한 빛이여  
오소서, 이름 없는 보물이여  
오소서, 끊임없는 기쁨이여  
오소서, 쇠퇴하지 않는 빛이여  
오소서, 모든 이를 구원하는 희망이여  
오소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여  
오소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변모시키며, 변화시키는 강력하신 이여  
오소서, 내 비천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생명의 숨이여  
오시어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소서.  
오시어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소서.  
오시어 우리 안에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소서.  
오시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소서.  
오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오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소서. 오시어 우리 안에 불멸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느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메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듯이 저희가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6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정교회를 올바르게 이끄시어 주님의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대교구

➡ 오순절 축일로 금식해제.

이번 주간에는 오순절 축일의 경축기간으로 수, 금요일에 금식이 없습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40일 입당식.

지난 5월 30일(토) 대만과 후 요한 김형석 교우와 마리아엘레나 교우의 차녀 소피아 유아가 40일 입당식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올바른 정교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 주간예식



6월11일(목) 성 바르톨로메오스와 성 바르나바 사도, 중국 미트로파니스 치순 순교자와 가족 4인과 222명의 순교자들 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